

“김제에서 영호남 문인들 화합 다져”

영호남수필문학교류대회 9월개최... 문학상 시상도 함께

영호남수필문학협회(회장 김정길)가 창립 25주년을 맞아 아쉽게 기뻐한 2016 영호남수필문학교류대회가 오는 9월 3~4일 여흥 김제 모악산유스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수필문학대회는 전국의 6개 시·도지부 300여명의 수필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다채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전국 500여 회원들이 발표한 작품 중에서 170편의 우수 창작품을 선정해 '영호남수필' 제26집과 전북지부 64명의 회원들이 발표한 작품집 '완산 발에 핀 꽃'을 처음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170편의 창작품 중에서 우수한 작품을 선정해 제20회 영호남수필문학상과 제1회 창립회장 문학상을 시상할 예정이다. 제1회 창립회장 문학상은 최화경(전북) 작가의 '봄을 위하여'와 한신디아(울산) 작가의 '거북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제20회 영호남수필문학상은 허정자(대구) 작가의 '손'과 고경서(부산)

작가의 '바다론, 공로상에는 김정식(부산) 작가에게 돌아갔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소재호 문학평론가는 "최화경의 '봄을 위하여'는 바퀴 달린 것들에 대한 공포는 무의식의 세계에서 유래된 듯 설명하고 삼대에 걸친 이야기의 연쇄성이 심오한 문학성을 담지하고 있다"고 평했다. 한신디아의 '거북손'은 돌미역과 어머니의 거북손 이미지가 절묘하게 연계되면서 시적 발상을 유발한 작품이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허정자의 '손' 예리하게 손을 관찰하고 손의 주인공 심리까지 읽어 내므로 수필이 인간학의 발원임을 증명하는 수작이라고 평했다. 고경서의 '바다론'은 스토리의 구성은 고도의 의도성을 지니며 '바다'인 천장이라는 역설적 형용의 묘미는 눈



최화경 씨 한신디아 씨 허정자 씨 고경서 씨 김정식

은 차원의 문학성을 보여준다고 평했다. 영호남수필문학협회는 지난 1991년 영호남 6개 지역(전북, 부산, 대구, 울산, 광주, 전남) 수필가들의 창작교류를 통해 단일민족성 회복과 영호남의 갈등 해소와 친교를 쌓고 화합을 이루기 위해 창립된 순수 문학단체다. 이번 교류대회에는 영호남수필 창작발표 및 동서화합을 위한 '영호남수필문학교류', '영호남수필 문학지 발간 제20회 영호남수필 문학상'과 '제1회 창립회장문학상' 시상, 한산평 문학평론가의 문학 강연, 김제지역 문학기행 등으로 진행된다. 영호남수필문학 교류대회 시정담을 맡은 김정길 회장은 제4대 행촌수필문학회 회장을 거쳐 현재 전북문인협회 부회장, 전북수필문학회 부회장 등을 맡아 수필문학 저변 확장과 영호남수필문학 교류를 통한 동서화합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자연을 사랑하는 전문작가인으로도 활동하는 김정길 회장은 전북신안연맹 상금부회장과 숲사랑운동 서부연합회 대표와 모악산지킴이 회장을 맡아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다. /김영재기자



완주자원봉사센터, 비봉 어르신들께 '묵한사발' 대접 봉사

완주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이성윤)와 비봉면 자원봉사단(회장 조문순)은 비봉지역 어르신들에게 무더운 여름을 이겨낼 시원한 음식을 선물했다. 27일 자원봉사센터는 도토리묵, 얼음육수, 야채 120명분을 직접 준비해 비봉면사무소 노래교실 어르신들에게 '묵한사발'을 대접해 드렸다. 자원봉사 회원들이 평지경로당 및 인근 마을 경로당까지 음식을 직접 전달했다. 또한 수지침 및 네일아트 등 전문봉사활동도 함께 병행하여 더위에 지친 어르신들의 건강을 체크하는 시간도 가졌다. 비봉면 한 어르신은 "계속되는 폭염으로 지쳐 있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음식에 건강을 다시 찾는 기분이다"며 고맙다고 말했다. /원주=이종복기자

김성중 익산경찰서장, 업무유공 경찰관 표창 수여식 개최

익산경찰서(서장 김성중)는 지난 27일 오전 중앙지구대(대장 김용대)를 찾아가 업무유공자 경위 이상석, 순경 김기환에 대한 표창수여식을 개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중앙지구대 이상석 경위는, 지난 24일 오후 5시 06분경 익산시 인북로 00식당앞에서 평소 수배자 정보를 인지하고 있던 비수한 용의자를 붙잡고 검문하여 격렬히 저항하는 수배자를 검거한 유공, 신임순경 김기환은 지난 24일 주간 근무 중 전일 남중동에서 치매노인 미귀가자 사건을 인계받아 면밀히 수색하던 중 모현동에서 무더위 탈진 상태에 있는 요구조자를 발견 가족에게 인계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경찰상 정립에 기여한 유공으로 경찰서장 표창을 수여 받았다. /익산=정양원 기자

한화에너지(주) 군산공장, 모범납세 법인 도지사 표창

한화에너지(주) 군산공장(공장장 주선태)이 2016년도 모범납세 법인'으로 선정돼 지난 25일 전라북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모범납세 법인은 최근 5년간 지방세 체납 없이 매년 3건 이상 5천만원 이상을 납기 내 전액 납부한 법인을 대상으로 꾸준한 세수증가와 성실납세, 자주재원 확충 기여 등 세수지표와 지역사회 발전 공헌도 등에 대해 군산시의 공적심사와 추천을 받아 전라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사 및 표창공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한다. 한화에너지(주) 군산공장은 2007년 12월 설립 이후 현재까지 한 건의 체납도 없이 38억원의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했다. 주선태 한화에너지 군산공장장은 "앞으로도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원활한 가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나눔 봉사 실천에도 앞장서는 모범업체로 성장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군산=문정근 기자



전북은행, 일용직 건설근로자 전용 상품 개발 위한 업무협약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28일 여의도 JB빌딩 11층에서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권영순)와 건설근로자 맞춤형 금융상품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 권영순 이사장과 이강본 전무, 전북은행 임용택 은행장, 서한국 부행장 등이 참석하였다. 그 동안 건설근로자들은 소득증상이 어려워 은행에서 대출이 쉽지 않아 주로 2금융권에서 평균 20% 이상의 고금리로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내달 1일 출시할 '체인지업 론'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퇴직공제금을 적립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용상품으로 이자부담 경감 및 신용등급 향상 등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은행권 대출 시장에서 소외된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의 경우 소득이 일정치 않아 그동안 제 2금융권 등에서 고금리 신용대출을 받아 왔"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전주매일 www.jnmaeil.com 2016년 1월 29일 통권(92권)
 동국본호 전북 가00016 (우 66092) 전주 완산구 기린대로 22-4층 (서노출동)

부회장 김승근 전무 김관춘

•대표전화 288-9700 •입무국 FAX 288-9703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865-418	중앙지사 010-9868-6674	남원지사 632-3886	고창지사 586-6889
삼천포지사 010-2333-498	인후지사 246-6835	김제지사 547-6855	임실지사 010-9862-2725
서신지사 22-947	송천지사 255-204	완주지사 246-6855	진안지사 433-3084
호주지사 010-6865-9835	팔복지사 258-6884	남원지사 632-0885	정읍지사 536-9787
	군산지사 446-6757	순창지사 659-0444	장수지사 010-3862-8157
	익산지사 859-6823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30-4258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새롭게 구성된 간부들과 토론시간”

완산구, 시의원 초청 후 구정 간담회 개최

완산구(구청장 이용호)에서는 28일 오봉근 행정위원장, 양영환 복지환경위원장, 이기동 문화경제위원장 등 20여명의 시의원과 구청 간부 30명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정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상호간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시의원들과 구청 간부들은 전주시정 철학인 사람우선 인 간중심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현장행정이 우선돼야 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공원시설물 및 녹지 유지관리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강조했다. 또한 저소득계층의 정주여건 마련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 10년에 걸쳐 추진해 온 2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 마무리사업 등 2016년 주요사업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용호 완산구청장은 "하반기 마무리 사업들이 시민들에게 불편과 피해가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다하겠다"며 "구민 모두가 희망과 긍지를 가지고 살고 싶어 하는 완산구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김영재 기자

청정에너지상
정부 3.0

같은 마음의 에너지 절약이 모두의 미래가 됩니다

국민과 기업이 함께하는 더 나은 내일! 온실가스를 줄이는 모두의 에너지절약이 지구를 살립니다

기업과 개인 모두 여름철 실내온도 26℃로 절약은 더하기

실내조명 자동제어 시스템으로 낭비는 줄이기

도시지역을 신재생 에너지로 희망은 두배로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으로 기쁨은 나누기